

“글쓰기는 삶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도구”

전북연구원, ‘전북 백년포럼’ 개최…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초청 강연

“글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세상과 대화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다”
전북연구원은 7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누구든 글쓰기: 삶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도구’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AI 시대를 맞아 인간 고유의 사고력과 성찰 능력,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회복하는 방안으로서 ‘글쓰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고도원 이사장은 강연에서 “글은 단순한 기록이나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쳐 지나가는 일상과 감정을 글로 붙잡는 순간, 평범한 삶은 성찰의 대상이 된다”며 글쓰기가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설명했다.

강연에서는 독서와 글쓰기의 관계도 함께 다뤘다. 고 이사장은 “단단한 독서가 단단한 글을 만든다”며,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이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2·5 독서법’, 발췌와 요약 통한 읽기·쓰기 방법 등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독서·글쓰기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글쓰기를 통해 개인이 회복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과 내면의 공간에 대해 설명하며, “복잡한 일상 속에서 글쓰기는 잠시 멈춰 자신에게 집중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글쓰기가 스트레스와 피로를 완화하고,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전북연구원은 7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누구든 글쓰기: 삶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도구’를 주제로 ‘전북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20여 년간 이어온 ‘고도원의 아침편지’ 사례를 언급하며, “한 통의 글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소통하고 공감을 확산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쓰기는 개인의 성찰을 넘어 사회적 이해와 연대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가 다양한 창작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고 이사장은 “AI는 어떻게(How)를 해결하는 도구이지만, 인간은 왜(Why)를 묻고 의미를 만드는 존재”라며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인간다움과 가치의 방향을 묻는 인문적 사고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고 이사장은 “글쓰기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결심의 문제”라며, “지금 이 순간 ‘한번 써보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글쓰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마련한 전북연구원 최백렬 원장은 “2026년 첫 백년포럼은 글쓰기와 인문적 성찰을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북 백년포럼을 통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성찰하는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와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이만호 기자

체류형 관광 콘텐츠 고도화 본격 추진

군산문화관광재단,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 최종 선정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김임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재단은 국비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4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2차년도 사업을 연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광 거점과 지역 협업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서비스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간 재단은 2025년 1차년도 사업을 통해 관광 거점 공간 조성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 기반 마련에 집중해 왔다.

세부적으로는 △관광 거점 공간 조성 △관광 콘텐츠 시범 운영 △지역 창작자·상권·관광주체 협업 기반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여행자 참여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군산항1981’ 운영과 지역 창작자·상권과 협력한 원데이클래스, 투포털 야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는 방문객 유입과 체류 시간 확대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또한 예술인·소상공인·관광 관련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군산여행작당소’를 발족해 관광 콘텐츠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올해, 관광 서비스의 완성도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관광 거점 공간 운영 고도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 및 지역 협업 프로그램 본격화 △지속 가능한 관광서비스 운영 구축 등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방문 동기를 강화하고,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는 체류·재방문 중심의 관광 구조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소리 판’ 완창무대 소리꾼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2026년 판소리리마당 ‘소리 판’ 완창무대에 출연할 소리꾼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한 바탕을 완창할 수 있는 19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소리꾼으로, 심사를 통해 5명을 선발해 무대 운영 지원과 출연료를 제공하며,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6일 오후 1시까지이며, 이메일(nice12s@korea.kr)로만 신청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이어온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 기획공연 ‘소리 판’ 완창무대는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설집을 제작·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공연은 4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국악원 예음헌에서 명창 초청공연(1회)과 공모로



선정된 소리꾼들의 완창무대(5회) 등 총 6회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63-620-2325)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공연예술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 탄력

전주세계소리축제, 국비 3억6000만원 확보… 2년 연속 사업 수행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2026년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에서 국비 3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지난해 국비 4억5,000만원에 이어 2년 연속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은 국내 주요 축제를 공연예술 장르별 유통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음악·무용·연극·전통 분야를 대표하는 축제가 각각 선정됐으며,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

통예술 장르를 대표하는 축제로 뽑혀 2025년 1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1차년도 사업 평가에서 “소리 NEXT 등 장르별 시장 거점화 사업을 통해 전통공연예술의 국내외 유통 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쇼케이스와 피칭 세션 운영, 축제와 연계한 학술 행사 등을 통해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을 적극 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한층 강화됐고, 전통예술의 존재감을 높이는 성과도 거뒀다.

사업에 참여한 공연팀의 해외 투어 성과가

실제로 도출되는 등 가시적인 결과도 확인했다는 평가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국비 확보를 계기로 2026년부터 국내외 유통 시장 조성을 위한 스케일업 단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쇼케이스와 피칭 세션, 포럼 등을 중심으로 전통공연예술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제를 전통예술 유통의 핵심 플랫폼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전통공연예술 장르의 국내외 유통 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2026년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을 통해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고창 신재효판소리공원, 겨울방학 판소리 산공부 참가자 모집

고창군 신재효판소리공원이 겨울방학 기간 판소리 전공자를 대상으로 판소리 산공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는 판소리 무형유산보유자 또는 전국대회 대통령상 수상 지도자 및 대학 판소리 전공학과 학습 교육으로 단체별 신청일은 7~10일 정도, 인원은 7~15명 정도이다.

산공부 장소인 신재효판소리공원 내 득음실은 전문 소리꾼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명창과 제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흔히 말하기를 소리꾼들에게 겨울과 여름 산공부가 1년 농사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전문 소리꾼들은 물론 예비 소리꾼들도 숙세의 생활 중에는 소리에 전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음껏 소리를 할 수 있는 공간



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판소리계에서는 일정 기간의 여름 산공부가 필수적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

참가자에게는 신재효판소리공원 산공부 장소와 숙소를 제공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